

# '글로벌대학30' 본지정 위해 총력전

### 익산시-원광대, 회의개최... 협력 방안 논의·실행계획·지원전략 구체화 '머리 맞대'

익산시가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앞두고 원광대학교와 역량을 결집하고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원광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익산시 인구활성화추진단(단장 강영석 부시장)과 원광대 글로벌대학30 사업추진단(단장 황진수 부총장)이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계획과 지원전략을 구체화했다.

'글로벌대학30'은 정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벌(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 대학'으로 지정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익산시는 지난 4월 16일 원광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이후 선제적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같은 달 26일 인구활성화추진단을 구성했다.

본지정 평가에 대비해 원광대학교와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실행계획을 공동 수립하며 최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특히 기존 '효인제양성계'를 '대학협력계'로 조직개편해 더욱 유기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익산시가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앞두고 원광대학교와 역량을 결집하고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는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대학을 비전으로 대학 통합을 통한 생명산업 특성과 △학생 선택형 다학제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 메디컬 리더 양성 거점화 △세계기능대학 설립 및 국제기구화 추진 등을 주요 실행과제로 정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생명산업 집적화 밸리 구축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 △전주기 평생직무교육 강화 등도 실행할 예정이다.

황진수 부총장은 "글로벌대학30에 반드시 선정돼 원광대와 익산시의 동

반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혁신적 교육과 연구를 통해 생명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석 부시장은 "익산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지역교육 혁신에 추진력을 얻었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생명 바이오산업 성장이 예상된다"며 "글로벌대학30 지정은 맞춤형 인재 양상으로 지역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원광대학교 본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민선 8기 공약사업 순항 중

### 61개 공약사업 이행률 66.39%... 완료 22건·정상추진 37건

군산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 도시 군산이라는 비전 아래, 소통공감 혁신도시 등 5대 분야 총 61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약사업 이행현황으로는 △완료 22건(18건 이행후 계속 사업 포함) △정상추진 37건 등으로 현재 66.39%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 완료 사업으로는 △시장 직속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RE100 산업단지 기업 유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및 안심물가계 운영 △지역산업 성장 사다리 강소기업 육성 지원 등이 있으며,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약사업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친환경 전기차 생태계 조성 확대 △중고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도입 사업 △생태 주차장 조성사업 △달팽이마을을 관광·문화에 친한 달 살기 프로젝트 사업 등은 올해 완료로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한편, 공약사업 추진 여건 등의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6월 27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가졌다.

변경안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4차산업 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업을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으로,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군산다움이 담긴 문화재단 활성화 추진으로, △사업평가 사업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군산 어린이 상상도시관 건립을 군산 상상도시관 건립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논의됐다.

폐지안으로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 부재 및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동백대교 연계 상상포차·야시장 축제사업은 해산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및 주변 상권 등 다각적 장기검토 후 향후 변화된 환경에 맞는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논의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약사업 추진 여건 변화로 불가피하게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처럼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 37건 공약사업들도 차질 없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공약 이행을 제고를 위해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하반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 주공시장서, 12일까지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군산시는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군산 주공시장에서 수산물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는 총 13개이다.

또한 주공시장 내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에서 1시간동안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행사 참여 점포라는 안내판이 게시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입하면 된다.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2만원으로,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 주공시장 상인회 사무실 2층에 설치된 환급소에 방문해 은누리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계(☎063-454-2686) 주공시장 상인회(☎063-461-0567)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치매안심센터 '기억의 봄 쉼터' 수료식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5일 상반기 '기억의 봄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마치고 프로그램 참가자 26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가졌다.

'기억의 봄 쉼터 프로그램'은 모현동 치매안심센터와 함열읍 북부권 치매분소에서 19주간 운영됐다. 초기 치매 어르신 인지 및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전북자치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제작한 교재를 이용한 활동과 만들기 활동, 운동치료 등을 진행했다.

이번 수료식은 참가자 소개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활동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시청하며 추억을 공유했다. 이어 치매가족 자조모임 회원들이 수료를 축하하는 3개월간 연습한 수화 공연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행사를 종료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운영하는 하반기 '기억의 봄 쉼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북자치도 4H연합회 체육대회, 익산에서 성황리 개최

### 배드민턴·배구·계주 등 6개 종목 체육활동·교류의 시간 가져

익산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 회원들이 화합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체육대회는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영농철 힘든 농사일로 인해 고단했던 심신을 안정시켜 영농 의욕을 고취하던 습관을 되찾아준다. 또한 단체정기를 통해 시군 회원 간 협동심을 강화하고 소통

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8일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강경숙 익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14개 시군 4H연합회 회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어 4-H 이념인 '지(Head)·덕(Heart)·노(Hands)·체(Health)' 4개 팀으로 나눠 배드민턴, 배구, 계주 등 6개 종목의 예선전을 진행했다. 2일 차에는 각 종목의 본선 경기를 치르며 마무리된다.

익산 출신의 이지훈 회장은 "이번 행사가 건강과 협동심을 다지고 우리 모두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4H 연합회가 젊은 농업인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농업·농촌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농업인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캐나다 입양 청소년들, 익산서 행복한 시간

### 청소년·양부모 30여 명, 문화체험·행사 참여

익산시가 캐나다 입양 청소년과 양부모의 방문을 환영하며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

익산시는 8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입양 청소년과 양부모 30여 명이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각각의 다양한 사연으로 입양된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리기만 하던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익산에서 1박 2일 동안 보석박물관과 고스락, 성당포구 등에서 문화 체험을 경험하고 시립풍물단 공연을 비롯한 행사들에 참여한다.

이번 익산 방문은 캐나다로 입양된 청소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모국방문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재개한 모국방문 행사는 1987년 설립해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대표 정애리)와 연계해 이뤄졌다.

한편 정현을 익산시장은 프랑크 유학 시절 입양된 친구들과 인연을 맺어 통역, 홈스테이 등 30년 넘게 온 가족이 후원자로 봉사해 왔으며 입양 청소년들의 모국방문 지원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함께해요 We 캠페인' 실시

군산시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해요 We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6일 개최한 인구의 날 기념 키움옴 페스티벌에서 함께 개최됐으며, 군산시는 군산시가족센터,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함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행사에서는 △외국인 주민 인식개선 리플릿 배부 및 관련 퀴즈 풀기,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표현하고 꾸미는 목각인형 만들기 △세계 전통 의상 입어보기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서로의 문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가치를 느끼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군산시 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15년도 3%(총인구 27만5,155명 중 외국인 주민 8,209명)에서 2022년도에는 4.3%(총인구 266,438명 중 외국인주민 1만1,378명)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군산시는이들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캠페인을 마련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